

제주항공 참사 10여일...무안공항 돌아온 유가족들

2기 대표단 구성...내주 합동 추모식 등 향후 계획 논의 대규모 피해 원인 지목 '콘크리트 둔덕' 위법논란 여전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10여일이 지났다. 그동안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유가족들은 다시 무안국제공항으로 모여 사태 마무리까지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

◇사고 현장찾아추모 후다시 심터로
지난 11일 오전 무안공항에 모인 유족과 자원봉사자 등 20여명은 공항 청사부터 사고현장을 잇는 '추모길'을 걸었다. 눈이 내리는 혹한의 날씨 속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들은 덩그러니 남겨진 기체를 바라보다 철조망에 검은 리본을 매달며 다시 한 번 추모했다.

추모 후 공항으로 돌아온 이들은 대화실에서 서로의 손을 잡거나 어깨에 기대며 아픔을 나눴다.

일부는 총회가 시작되기 전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유류품을 확인하기 위해

서틀버스에 몸을 실었고, 심터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가져온 짐을 풀기도 했다.

◇오는 18일 무안공항 합동추모제 확정
이날 총회를 통해 유가족들은 대표단을 다시 꾸렸고, 마지막까지 하나 될 것을 다짐했다.

2기 대표로 선출된 박한신 제주항공 유가족 대표는 총회 이후 브리핑을 열어 "100m 떨어진 지점에서 기내 좌석이 발견됐는데 여기에서 반경 100m를 더 수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좋은 날씨를 기준으로 3일 동안 수색해서 하나라도 발견되지 않으면 종료를 선언하겠다"며 "가족들에게 인도되지 않은 시신 일부는 합동 장례식을 위해 화장하고 잠시 보관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18일 합동추모제에 대해선 "할 주료가 매우 중요하다 해,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5일째인 12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소방대원들이 사고 현장 주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르고 마지막으로 사고 현장에 들어가 인사를 드리고 나올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차원의 사고 조사에 대해선 "하나의 거짓도 숨김도 없이 정확하게 해주실 거라 믿는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게 객관성 있게 판단해서 유족들에게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ZZ 둔덕 국토부조사결과 뒷말 무성

유가족 총회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규정 위반 조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둔덕 위치와 재질, 형상 등을 살펴본 뒤 국토부가 내린 결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제시한 근거가 국내 고시나 국제규정이 아닌 미국항공청의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여러 해석을 양산할 수 있을 정도로 미흡하다는 점에서 위법성 논란이 좀처럼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특히 로컬라이저가 2007년 개항 당시와 달리 2023년 콘크리트 상판을 추가 설치하는 개량 사업을 거쳐 사고 당시의 모습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서 의거하고 있는 신속한 개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개선 공사 시 규정 개선 사안 미반영에 관한 부분은 자체 판단이 어려워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영 기자

'내홍 산물' 중앙공원 1지구 항소심 내달 마무리

케이앤지스틸-우빈산업·빛고을SPC·롯데건설 '주주권 확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 구성원 간 내홍에서 비롯된 다수의 소송 중 마지막 남은 항소심 재판의 선고가 다음달 이뤄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피고 우빈산업, 빛고을SPC 등과 원고 케이앤지스틸 간의 항소심 변론을 지난 9일 다시 한번 종결했다. 당초 이 소송의 변론은 지난해 7월25일로 끝났으나 재개와 종결을 거듭해 왔다.

1심에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이 콜옵션을 발동하며 가져간 빛고을SPC 주식 24%의 주주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의미가 없어졌다. 빛고을SPC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우빈산업의 대표이사가 100억원대 채무를 갚지 않자 대신 변제에 나선 롯데건설이 근질권을 행사하며 우빈산업 보유 주식 전부를 가져갔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진 우빈산업이 판결 불복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케이앤지스틸은 1심까진 보조 참가자였던 롯데건설의 '인수 참가'를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 케이앤지스틸은 주주권 확인 다툼을 롯데건설과 해 왔다.

최후 변론에서 케이앤지스틸 측은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빛고을SPC가 고의로 채무를 갚지 않아 케이앤지스틸에 줘야 할 우빈산업의 주식이 롯데건설로 이동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배임'이기에 근질권 행사도 무효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피고들은 당시 빛고을SPC 상황이 불안정했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고의 부도) 것은 맞지만, 롯데건설의 근질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변론을 종결한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법 민사 2부가 맡았던 중앙공원 1지구 관련 항소심 재판 두 건

은 지난해 9월 마무리 돼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안재영 기자

수뢰 혐의 국회의원 보좌관 구속기소

사업가로부터 국가 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과 그 대가로 현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남지역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사업주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해, 선정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자신의 지위를 개인적 부 축적 수단으로 악용한 고질적인 지역 토착형 부패범죄"라며 "결과적으로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자 선정 공정성도 훼손했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뇌물 대가 수사 편' 전직 경찰 간부 징역

골프 등 향유만 유죄 인정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유를 대가로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정(60대)에 대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성모(64)씨는 징역 4

개월·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수사 편의를 봐주고 뇌물 600만원을 받았다는 A씨의 혐의에 대해선 공여 사실을 자백한 성씨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고 이것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수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며 성씨에게 골프와 식사 등 향유를 받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광주 한 경찰서 수사과장 재직시절 성씨의 청탁을 받고 코인 사기범 탐모(46)·별도

기소)씨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진술 방법을 알려주고, 사건 일부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일부만 불구속 송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A씨에게 사건 청탁 대가로 현금 600만원과 4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를 한 혐의가 적었다.

재판에서 성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A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브로커 성씨의 비위를 수사하면서 확대됐는데,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와 전·현직 검경 관계자 18명(10명 구속기소) 등이 기소돼 현재 1·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안재영 기자

GGM 출범 5년 만에 노조 '첫 파업'

집행부 20명 4시간 부분 파업...오늘 노조원 228명 동참

전국 최초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 출범 5년 만에 노조가 첫 파업에 들어갔다.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GGM 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2시20분부터 4시간

동안 노조 집행부 20여명이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첫 지역상생형 일자리 기업으로 출범한 지난 2019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호봉제 실시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기존 협정

서를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13일부터는 조합원 228명이 부서별로 20~30명씩 순환 참여하는 부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정의대적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는 "광주시와 GGM 주주단은 노조의 '상생'의 길을 포기하고 '탐압'을 선택했다"며 "이들은 노사상생협정서 준수를 내세워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주성학 기자

방수제 · 바닥재 · 혼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